

대 이란 제재 관련 UAE 현지 동향

- '10년 6월말 UAE 중앙은행은 유엔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이란의 기업 및 개인과 관련된 41개의 계좌를 동결하고 송금거래를 중단하도록 자국내 전 금융기관에 지시하였음.
- 이후 UAE 내에서 이란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통한 이란과의 수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며, 이란으로 들어가는 교역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도 한층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져 UAE를 경유한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에도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UAE 현지은행들은 제재대상 기업 및 개인 뿐 아니라 모든 이란 관련 금융거래를 건별로 개별심사 한 뒤 제한적인 거래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있어 UAE 은행을 통한 이란은행으로부터의 입금 및 송금 업무도 어려운 상황임.
- 특히 UAE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UAE 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.
- 현지은행 담당자 면담 결과 은행 내부적으로 이란 관련 신규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, 기존 거래기업들에 대해서도 UAE 현지통화인 디르함에 한하여 제한적인 송금거래만 허용하고 있다고 함.
- 이번 UAE 정부의 대이란 제재 관련 조치는 UAE의 2대 토후국이자 중동의 물류/금융 허브 역할을 해 온 두바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□ '09년 기준 두바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 이란으로 재수출, 환적되는 물량이 약 60억 달러이며,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이란인 소유 회사가 약 1만 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두바이의 경제적인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이번 UAE 정부의 강경조치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UAE 정부의 강경조치가 이란과의 걸프해 3개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*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하고 있음.

* UAE는 영국이 1971년 UAE 통치를 종료하고 철수하는 시점에 이란이 걸프해에 위치한 아부 무사 등 3개섬을 무단 점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3개섬 반환을 촉구하는 등 양국간 영토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.

□ 두바이에 위치한 현지 한국 기업들도 한국 금융기관들의 이란 금융거래 제한조치와 함께 UAE 현지 은행들을 통한 이란과의 금융거래도 막히게 되면서 향후 대 이란 수출물량 감소, 추진사업의 재검토 등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.

<두바이 사무소 제공>